

## ‘叫’構文的 意味論的 分析\*

苗 延 昌\*\*

<目 次>

I. 머리말	III. N <sub>1</sub> 과 N <sub>2</sub> 의 의미 역할
II. V와 VC의 의미 특징	1. ‘叫 <sub>1</sub> ’구문의 N <sub>1</sub> 과 N <sub>2</sub> 의 의미 역할
1. ‘叫 <sub>1</sub> ’구문의 V와 VC의 의미 특징	2. ‘叫 <sub>2</sub> ’구문의 N <sub>1</sub> 과 N <sub>2</sub> 의 의미 역할
2. ‘叫 <sub>2</sub> ’구문의 V와 VC의 의미 특징	IV. 맺음말

### I. 머리말

현대중국어에서 ‘叫’로 구성된 ‘N<sub>1</sub>+叫+N<sub>2</sub>+V(C)+(N<sub>3</sub>)’ 형식의 문장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런 문형을 ‘叫’구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1) 他叫我學到了不少東西.  
그가 나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
- (2) 他叫我聽見了中國畫家的心聲.  
그가 나에게 중국 화가들의 속말을 듣게 했다.
- (3) 他叫我付出了很大的代價.  
그는 나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4) 他叫我學英語  
그는 나에게 영어를 배우라고 했다.
- (5) 他叫我聽音樂  
그는 나에게 음악을 들으라고 했다.
- (6) 他叫我付錢  
그는 나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했다.

(1~3)의 ‘叫’는 모두 ‘致使’ 의미를 나타내며, 모두 ‘使’로 대체할 수 있다. (4~6)의 ‘叫’는 모두 ‘支使’ 의미를 나타내며, 모두 ‘使’로 대체할 수 없다. 서술의 편리를 위해 전자를 ‘叫<sub>1</sub>’구문, 후자를 ‘叫<sub>2</sub>’구문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주어를 N<sub>1</sub>, ‘叫’ 뒤에 오는 성분(겸어)을 N<sub>2</sub>, N<sub>2</sub> 뒤에 오는 동사(형용사, 주술구, 관용구 등도 포함)나 술보구를 V/VC로, 동사의 빈어를 N<sub>3</sub>로 표기하기로 한다.<sup>1)</sup>

지금까지 이 두 ‘叫’구문의 통사구조에 대한 어법학자들의 견해는 각양각색이다. 黎錦熙(1982: 18-19)는 이 두 ‘叫’구문을 主述賓補式으로, 丁聲樹(1979: 118-119)는 이 두 ‘叫’구문을 겸어식으로 분석하였고, 《現代漢語虛詞例釋》(1986: 275-276)에서는 이 두 구문의 ‘叫’를 개사로 분류하고 ‘叫’ 뒤에 오는 N<sub>2</sub>와 介賓구조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朱德熙(1984: 163, 179)는 ‘叫<sub>1</sub>’구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며 ‘叫<sub>2</sub>’구문에 있는 ‘叫’를 개사로 보고, “‘叫’+N<sub>2</sub>+V”를 連謂結構로 분석하였다. 통사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叫’구문은 어떤 학설에 적용하든 간에 모두 동일한 통사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叫’구문은 과연 동일한 의미구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他叫我學了不少東西.  
(2) \*他叫我聽了中國畫家的心聲

1) 이밖에 피동을 나타내는 ‘叫’도 이런 문형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叫’는 施事者를 인도하는 ‘被’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叫’구문은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那本書叫他借走了.(그 책은 그가 빌려갔다.)’가 그러하다.

- (3) \*他叫我付了很大的代價
- (4) \*他叫我學到英語
- (5) \*他叫我聽見音樂
- (6) \*他叫我付出錢

(1~3) '는 (1~3)의 VC '學到, 聽見, 付出'를 '學, 聽, 付'로 고친 경우인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4~6) '는 (4~6)의 V '學, 聽, 付'를 '學到, 聽見, 付出'로 고친 경우인데 역시 모두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이 두 구문의 V/VC는 모두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였으나 각자의 독특한 의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실은 이 두 '叫'구문의 동사나 술보구의 유형에 대한 선택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叫<sub>1</sub>'구문인 (1~3)의 N<sub>1</sub>과 '叫<sub>2</sub>'구문인 (4~6)의 N<sub>1</sub>은 모두 대명사 '他'를, N<sub>2</sub>는 모두 대명사 '我'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문에서 어떤 의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밖에 어떤 의미 특징을 가진 어구들이 N<sub>1</sub>과 N<sub>2</sub>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V와 VC로 사용될 수 있는 술어성 어구들의 의미 특징을 검토한 후에야 이들 두 '叫'구문의 의미구조를 규정할 수 있다.

## II. V와 VC의 의미 특징

동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馬慶株(1992: 13-46)는 동사 앞뒤에 “來/去”를 붙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동사를 自主動詞와 非自主動詞로 나누었고 非自主動詞를 다시 屬性動詞와 變化動詞로 나누었다. 自主動詞란 의미상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동작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를 가리키며 그 의미 특징은 [+自主], [動作]이다. 자주 동사는 그 뒤에 변화의 완성을 나타내는 “了”나 명령 어기를 나타내는 “了”를 부가할 수 있으며, 이를 부가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술어가 될 수 있다.<sup>2)</sup> 非自主動詞는 무의식적이고 타의적인 동작 행위를 나타내며, 그

2) 接, 拿, 搖, 玩, 吃, 過, 帶, 送, 寫, 坐, 做, 買, 挑, 畫, 幫, 擦, 插, 進, 看, 告

의미 특징은 [-自主], [變化]/[屬性]이다. 비지주동사는 그 뒤에 변화의 완성을 나타내는 “了”만 부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완성을 나타내는 “了” 없이 단독으로 말할 수 있거나 술어가 될 수 있는 비지주동사는 屬性動詞이다.<sup>3)</sup> 변화의 완성을 나타내는 “了” 없이 단독으로 말할 수 없고 술어가 될 수 없는 비지주동사는 變化動詞이다.<sup>4)</sup> 이제 어떤 의미 특징을 가진 동사가 이 두 ‘叫’구문의 V로 쓰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叫’구문의 V와 VC의 의미 특징

비지주속성동사는 ‘叫’구문의 V로 쓰일 수 있다.

- (1) 我的過失, 叫你不能得到幸福  
내 과실이 당신에게 행복을 얻을 수 없게 했다.
- (2) 這叫我有時候會聯想到那些客居異域的人.  
이것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외지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연상할 수 있게 했다.
- (3) 今天的情景叫各地主知道了無產者現在已經真正聯合起來了.  
오늘의 광경이 지주들에게 無產者들이 이제는 연합하였다는 것을 알게 했다.

(1~2)의 비지주속성동사 ‘能’은 각각 ‘叫’구문의 V로 쓰였으며, 그 뒤에 오는 동사구를 빈어로 취하고 있다.<sup>5)</sup> (3)의 ‘知道’도 비지주속성동사

訴, 介紹, 分配, 安排, 幫助, 回答, 揮動, 準備, 預備, 選舉, 報答, 觀察 등이 이에 속한다.

- 3) ‘是, 有, 等於, 類似, 如, 知道, 懂, 認得, 會, 符合, 應該, 能, 可以’ 등이 이에 속한다.
- 4) ‘嚇, 遭, 變, 失, 輸, 受, 忘, 得(病), 氣, 迷, 晃, 歪, 成, 傷, 陷, 長, 顯, 昏, 認, 倒, 褪, 患, 流, 落, 感, 冒, 生, 遇, 病, 感覺, 忘記, 模糊, 取得, 避免, 產生, 感動, 出現, 動搖, 失去, 回憶, 失望, 傷心, 迷惑, 形成, 顯得, 好轉, 清醒, 懷疑, 陷入, 增加, 轉變, 懂得’ 등이 이에 속한다.
- 5) 능원동사는 ‘긍정+부정’의 질문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에서 술어로 쓰

이며 그 뒤 ‘了’를 취하여 이러한 속성이 없는 것에서 이런 속성이 있는 것으로의 변화를 나타낸다.<sup>6)</sup>

비자주변화동사는 ‘叫<sub>1</sub>’구문의 V로 쓰일 수 있다.

- (4) 他的死, 叫我們感到大家都對不起他  
그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그에게 미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 (5) 他那麼多的本領叫他獲得了幸福  
그렇게 많은 그의 재간이 그에게 행복을 얻게 했다.
- (6) 這次空襲叫敵軍遭到了極大的損失  
이번 공습은 적군에게 큰 손실을 입게 했다.
- (7) 主人的熱情好客叫我們很受感動  
주인의 열의 있는 손님 접대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받게 했다.
- (8) 社會風氣的變化叫他變成廢人了.  
사회풍조의 변화가 그를 폐인으로 변하게 했다.

(4~8)의 ‘感, 獲得, 遭, 受, 變’은 모두 비자주변화동사이며 각각 ‘叫<sub>1</sub>’구문의 V로 쓰이고 있다. 이런 동사는 N<sub>2</sub>가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고, 단지 무의식적이고 타의적으로 활동을 실행하였음을 나타낸다.

- (9)a. 這樣的環境叫他做了不應該做的事  
이러한 환경이 그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했다.  
b.\*這樣的環境叫他做不應該做的事
- (10)a. 也不知是一種什麼力量, 叫我向前跑了兩步  
어떤 힘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앞으로 몇 걸음을 뛰게 했다.  
b.\*也不知是一種什麼力量, 叫我向前跑兩步

인다고 본다.

6) 馬慶株(1992: 34) 참조

(9~10)의 (a)의 V ‘做 跑는 자주동사이나 그 뒤에 완성을 나타내는 ‘了’를 취하면 비자주 의미를 나타낸다. 馬慶株(1992: 24-25)는 자주동사는 완성 의미가 아닌 미래 동작을 나타낼 경우와 습관성 동작을 나타낼 경우, 자주적인 의미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으나, 자주동사가 그 뒤에 완성을 나타내는 ‘了’를 붙여 완성된 동작을 나타낼 경우, 의미상 자주 의미인지 비자주 의미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sup>7)</sup> (9)의 ‘做了는 주위의 좋지 않은 환경이 ‘我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하게 했음을 나타내고, (10)의 ‘跑了’도 어떤 힘이 ‘我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뛰게 했음을 나타내며, 스스로 자의로 뛰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9~10)의 (b)는 완성을 나타내는 ‘了’를 없애고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做 跑를 V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모두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자주동사는 ‘叫’구문의 V에 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蛇猛獸，傷害人和牲口，叫人們過不了日子

뱀과 맹수들이 사람과 가축을 해쳐서 사람들에게 생활을 할 수 없게 한다.

(12) 這本小說叫人留不下深刻的印象

이런 소설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없게 한다.

(13) 我叫他做不成天宮裏的皇帝

나는 그에게 황제가 될 수 없게 하겠다.

(14) 這樣的寫法真叫人理不清詳細的內容

이러한 글짓기 법은 사람에게 상세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한다.

(11~14)의 VC는 각각 ‘過不了, 留不下, 做不成, 理不清과 같은 가능식 술보구조이다. 이런 가능식 술보구조는 모두 비자주 의미의 통사구조이며,

7) 馬慶株의 견해는 동사의 體가 자주 의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斷	斷了
撕	撕了
動	動了

동사의 유형과 보어의 유형과는 관계가 없다.<sup>8)</sup> ‘過’와 ‘做’는 자주동사이고 ‘溜’와 ‘理’는 비지주동사이다. 동사가 자주동사든 비지주동사든 ‘不/得+결과보어/추향보어’로 구성된 가능보어를 취하여 구성된 가능식 술보구는 모두 비지주 의미를 나타낸다.

(15)a. 媽媽的精心關懷叫我考上研究生了.

어머니의 정성이 나에게 대학원에 합격하게 했다.

b.\*媽媽的精心關懷叫我考研究生

(16)a. 這次的訪問叫我學到了很多知識

이번 방문이 나로 하여금 많은 지식을 배우게 했다.

b.\*這次的訪問叫我學很多知識

(15a)의 ‘考’는 ‘叫<sub>1</sub>’구문의 V로 쓰였고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그러나 자주동사와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나타내는 ‘上’으로 구성된 술보구조는 비지주 의미의 통사구조이기 때문에 ‘考上’은 비지주 의미이다.<sup>9)</sup> (16a)의 ‘學’도 ‘叫<sub>1</sub>’구문의 V로 쓰였으며 자주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성취 의미를 나타내는 ‘到’로 구성된 ‘V+到’는 비지주 의미의 통사구조이기 때문에 ‘學到’는 비지주 의미이다.<sup>10)</sup> 이러한 사실은 통사구조는 동사의 자주 의미를 확정 혹은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b)의 ‘考’와 (16b)의 ‘學’는 모두 자주동사이며, 이런 동사가 V로 쓰인 ‘叫<sub>1</sub>’구문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叫<sub>1</sub>’구문의 V는 자주동사를 선택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상은 ‘叫<sub>1</sub>’구문의 V로 쓰일 수 있는 동사는 비지주속성동사와 비지주 변화동사이고 VC로 쓰일 수 있는 통사구조도 비지주 의미의 술보구라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밖에 형용사, 주술구, 관용구도 ‘叫<sub>1</sub>’구문의 V로 쓰일 수 있다.

8) 馬慶株(1992: 32) 참조

9) 馬慶株(1992: 31) 참조

10) 馬慶株(1992: 31) 참조

- (17) 他的成功, 真叫人高興.  
그의 성공이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했다.
- (18) 這個消息真叫人難過.  
이 소식은 사람을 괴롭게 했다.
- (19) 那句話, 叫我心裏很難受.  
그 말이 나로 하여금 마음이 매우 괴롭게 했다.
- (20) 這種音樂叫我精神很愉快.  
이런 음악이 나로 하여금 정신이 매우 유쾌하게 했다.
- (21) 這些手工編結的提籃和提包, 真叫人愛不釋手.  
손으로 짠 이러한 손바구니와 손가방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아서 손에서 놓지 않게 했다.
- (22) 這個景象真叫人慘不忍睹.  
이러한 광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비참해서 눈뜨고 볼 수 없게 했다.

(17~18)의 ‘高興, 難過’는 형용사로서 사람의 性狀을 서술하는 데 사용되며, 각각 ‘叫<sub>1</sub>’구문의 V로 쓰이고 있다. 이런 형용사는 그 자체가 나타내는 성상은 사람들에 의해 타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자주 의미의 형용사로 볼 수 있다. (19~20)의 ‘心裏很難受와 ‘精神很愉快’는 주술구이며 ‘叫<sub>1</sub>’구문의 V로 쓰이고 있다. 이런 주술구도 그 주술구의 술어인 ‘難受, 愉快’도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므로 주술구 전체가 비자주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1~22)의 ‘愛不釋手와 ‘慘不忍睹’는 관용구로서 복문을 네 글자로 함축시킨 형식이다. 이런 관용구를 구성하는 동사들도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런 관용구도 비자주 의미의 구조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비자주속성동사와 비자주변화동사 그리고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술구, 관용구가 ‘叫<sub>1</sub>’구문의 V로 쓰일 수 있고,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술보구가 ‘叫<sub>1</sub>’구문의 VC로 쓰일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즉 ‘叫<sub>1</sub>’구문의 V/VC에는 오직 비자주 의미의 술어성 어구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2. ‘叫<sub>2</sub>’구문의 V와 VC의 의미 특징

자주동사는 ‘叫<sub>2</sub>’구문의 V로 쓰일 수 있다.

- (1) 阿里叫我告訴你這件事.  
    阿里가 나에게 당신한테 이 일을 알려라고 했다.
- (2) 老師叫學生做實驗  
    선생님은 학생에게 실험을 하라고 했다.
- (3) 醫生叫我少吃肥肉  
    의사선생님은 나에게 기름진 고기를 적게 먹으라고 했다.
- (4) 媽媽叫我考研究生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원 입학시험을 보라고 했다.
- (5) 媽媽叫他寫封信給姑媽  
    어머니는 그에게 고모한테 편지를 쓰라고 했다.

(1~5)의 ‘告訴, 做, 吃, 考, 寫’는 모두 자주동사이며 각각 ‘叫<sub>2</sub>’구문의 V로 쓰이고 있다. 이런 동사는 그 앞뒤에 來/去를 붙일 수 있으며, 의미상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동작 행위를 나타낸다.

- (6)a. 媽媽叫孩子接電話  
    엄마는 아이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b.\*媽媽叫孩子接到電話
- (7)a. 老師叫學生買書  
    선생님은 학생에게 책을 사라고 했다.  
    b.\*老師叫學生買着書
- (8)a. 媽媽叫孩子念書  
    엄마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했다.  
    b.\*媽媽叫孩子念上書<sup>11)</sup>

11) 이 문장을 ‘隣居的關懷和幫助叫我的孩子念上書了.( 이웃의 정성과 도움이 내 아이에게 학교를 다니게 했다.)’와 같이 고치면 올바른 ‘叫<sub>1</sub>’구문이 된다.

(6a)의 ‘接와 (7a)의 ‘買 그리고 (8a)의 ‘念은 자주동사이며, ‘叫<sub>2</sub>구문에 사용되고 있다. (6b)의 ‘到와 (7b)의 ‘着는 결과보어로서 성취하였음을 나타내며, 이들로 구성된 ‘接到와 ‘買着는 모두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동결식 술보구이다. (8b)의 ‘上은 추향보어로서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이로 구성된 ‘念上은 비자주 의미의 추동식 술보구조이다. 이런 술보구가 있는 (6~8)의 (b)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叫<sub>2</sub>구문에 비자주 의미의 술보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9) 他叫我穿上大衣

그는 나에게 외투를 입으라고 했다.

(10) 他叫我把行李放下

그는 나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11) 你叫人把這些東西搬進屋裏去

사람에게 이 물건을 방안으로 옮기라고 하세요.

(12) 你叫他繼續說下去

그에게 계속 말을 하라고 하세요.

(13) 叫人用繩子把這個箱子捆住

사람에게 이 상자를 끈으로 단단히 묶으라고 하세요.

(14) 媽媽叫孩子念到晚上十一點

엄마는 아이에게 밤 11시까지 공부하라고 했다.

(9~11)의 V는 모두 자주동사 ‘穿, 放, 搬’이고 추향보어를 취하고 있다. 자주동사와 공간적 추향을 나타내는 추향보어로 구성된 술보구는 자주 의미의 통사구조이다. 따라서 ‘穿上, 放下, 搬進去는 모두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동趨式 술보구이다. 이밖에 ‘拿來, 拿去, 送回, 舉起, 跑上來, 跳過來, 站起來, 寄回去’ 등과 같은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동추식 술보구도 ‘叫<sub>2</sub>구문에 쓰일 수 있다. (12)의 ‘說는 자주동사이고 역시 추향보어 ‘下去를 취하고 있다. 자주동사와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下去로 구성된 술보구는 자주 의미를 나타낸다. (13)의 자주동사 ‘捆는 고정 의미를 나타내는 결과보어 ‘住’를 취하고 있다. 자주동사에 ‘住’를 붙여 구성된 동結式은 자

주 의미를 나타낸다. (14)의 자주동사 ‘念은 결과보어 ‘到를 취하고 있다. 자주동사에 도달 의미를 나타내는 ‘到를 붙여 구성된 ‘V到는 자주 의미를 나타낸다.<sup>12)</sup> 이밖에 ‘畫淸, 做好, 準備好, 抓住, 站在, 躲在, 帶給, 轉告, 給’ 등 동결식 술보구도 자주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叫<sub>2</sub>’구문에 쓰일 수 있다. 이처럼 보어가 술보구의 성격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馬慶株(1992: 21)는 廣義의 동사는 형용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분류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비지주동사로 분류할 수 있고 ‘快, 慢, 小心’ 등만이 자주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 (15) 你叫孩子小心一點兒.  
아이들에게 좀 조심하라고 하세요.
- (16) 你叫他快一點兒.  
그에게 좀 빨리 하라고 하세요.
- (17) 你叫他慢一點兒.  
그에게 좀 천천히 하라고 하세요.
- (18)\* 他叫我餓
- (19)\* 他叫我累<sup>13)</sup>

(15~17)의 V는 모두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며, 모두 ‘叫<sub>2</sub>’구문의 V로 쓰일 수 있으나 (18~19)의 ‘餓, 累와 같은 비지주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叫<sub>2</sub>’구문에 사용될 수 없다.

이상은 ‘叫<sub>2</sub>’구문에 쓰일 수 있는 V와 VC의 의미 자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자주동사와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동주식 술보구와 동결식 술보구,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만이 ‘叫<sub>2</sub>’구문에 사용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2) 馬慶株(1992: 31-32) 참조.

13) 만일 비지주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叫’구문의 V에 출현할 수 있다면, 이런 ‘叫’구문은 ‘叫<sub>1</sub>’구문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這個效果叫人滿意”가 그러하다.

### Ⅲ. N<sub>1</sub>과 N<sub>2</sub>의 의미 역할

여기에서는 ‘ $\text{叫}_1$ ’구문의 N<sub>1</sub>과 N<sub>2</sub>의 의미 역할과 ‘ $\text{叫}_2$ ’구문의 N<sub>1</sub>과 N<sub>2</sub>의 의미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체의 의미 유형의 확정은 주체와 연계되는 동사의 의미 자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施事者는 사람이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작 또는 행위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그와 연계되는 동사는 반드시 자주동사이다. 當事者<sup>14)</sup>는 사람이 무의식적이고 타의적으로 동작 또는 행위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그와 연계되는 동사는 반드시 비자주동사이다.

(1) 他在吃飯

그는 밥을 먹고 있다.

(2) 他吃了很多虧

그는 손해를 많이 보았다.

(1~2)의 술어동사는 모두 ‘ $\text{吃}$ ’이지만 (1)의 ‘ $\text{吃}$ ’는 자주동사이고 (2)의 ‘ $\text{吃}$ ’는 비자주동사이다.<sup>15)</sup> (1)은 ‘ $\text{他}$ 가 밥을 먹는 동작을 의식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 $\text{他}$ ’와 자주동사 ‘ $\text{吃}$ ’ 사이에는 施事者 관계가 구성된다. (2)는 ‘ $\text{他}$ 가 물질적인 면에서 타의적으로 불이익을 보게됐음을 나타낸다. 즉 ‘ $\text{他}$ ’와 비자주동사 ‘ $\text{吃}$ ’ 사이에는 當事者 관계가 구성된다.

이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N<sub>1</sub>과 N<sub>2</sub>가 ‘ $\text{叫}_1$ ’구문과 ‘ $\text{叫}_2$ ’구문에서 의미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4) 魯川(1992: 13)은 의지 활동을 실행하는 주체를 施事者로, 비의지 활동을 실행하는 주체와 변화를 경험하는 주체, 그리고 性狀을 나타내는 주체를 當事者로 분류하고 있다.

15) 빈어는 동사의 자주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동사의 의미 항목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동사는 그가 취한 빈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馬慶株(1992: 27-28) 참조

1. ‘叫<sub>1</sub>’구문의 N<sub>1</sub>과 N<sub>2</sub>의 의미 역할

‘叫<sub>1</sub>’구문의 N<sub>1</sub>은 주어이고 V와 의미관계가 형성된다. N<sub>2</sub>는 ‘叫<sub>1</sub>’의 빈어이며,<sup>16)</sup> V와 의미관계가 구성된다. ‘N<sub>2</sub>’로 쓰일 수 있는 어구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명사구이다.<sup>17)</sup> 사람의 지위나 연배가 높은 낮은 간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라면 모두 N<sub>2</sub>로 쓰일 수 있다. 편의상 이런 명사와 명사구를 [+유생, +인간, ±상위] 명사구로 표기한다

- (3) 這裏的規矩叫我不得安寧.  
이곳의 규율이 나를 편안하지 못하게 했다.
- (4) 這些形象叫他產生了恐怖感  
이러한 형상이 그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키게 했다.
- (5) 這些說明叫我了解了這裏的情況  
이러한 설명이 나로 하여금 이곳 상황을 이해하게 했다.
- (6) 他叫我們看到了希望和前途  
그는 우리에게 희망과 앞날을 보이게 했다.

(3)의 ‘得’는 비자주속성동사이고, (4~5)의 ‘產生, 了解’는 비자주변화동사이며, (6)의 ‘看到’는 비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술보구이다. (3)의 N<sub>2</sub>‘我’는 이곳의 그 어떤 엄격한 규칙 때문에 무의식중에 편안할 수 없게 됐고, (4)의 N<sub>2</sub>‘他’는 스스로 자의로 공포감을 느낄 수는 없으며, 어떤 무서운 형상 때문에 타의로 공포감을 느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동사나 술보구와 의미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N<sub>2</sub>는 當事者로 분류하여야 한다. 주어N<sub>1</sub>은 ‘叫<sub>1</sub>’과 의미관계를 구성할 수 없고, V/VC와 의미관계를 구성한다. 왜냐하면 ‘叫<sub>1</sub>’은 허화되어 실제 의미를 나타낼 수 없고 단지 어법의미를 나타

16) ‘叫<sub>1</sub>’구문의 ‘叫’는 어휘의미가 모호하며, 개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叫<sub>1</sub>’은 ‘인도’라는 어법의미를 나타낸다. 《現代漢語虛詞例釋》(275-276)참조.  
17) ‘叫<sub>1</sub>’구문의 ‘叫<sub>1</sub>’과 용법이 같은 ‘使’의 N<sub>2</sub>는 [+유생, +인간]명사구, [+유생, -인간]명사구, [-유생, +구체]명사구, 추상명사구이다. 拙稿(1997: 151-153) 참조.

내기 때문이다. N<sub>1</sub>은 N<sub>2</sub>가 무의식중에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실행하게 된 원인을 나타낸다. (5)는 N<sub>2</sub>‘我’에게 이곳의 상황을 이제는 이해하게 만들어준 요소가 N<sub>2</sub>‘我’가 어떤 자료의 설명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6)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 요소가 바로 그의 어떤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N<sub>1</sub>은 의미상 원인 성분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叫<sub>1</sub>’구문의 의미구조는 ‘原因+ 叫<sub>1</sub>+ 當事者+ 비자주 의미의 술어성 어구’이다.

## 2. ‘叫<sub>2</sub>’구문의 N<sub>1</sub>과 N<sub>2</sub>의 의미 역할

‘叫<sub>2</sub>’구문의 N<sub>1</sub>은 통사적인 면에서 보면 ‘叫<sub>2</sub>’의 주어이고, 의미적인 면에서 보면, ‘叫<sub>2</sub>’와 의미관계가 구성되며, N<sub>2</sub>는 통사적인 면에서 보면 ‘叫<sub>2</sub>’의 빈어이나,<sup>18)</sup> 의미적인 측면에 볼 때, V/VC와 의미관계가 구성된다. N<sub>1</sub>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는 대체로 [+유생, +인간, +상위]명사구이고 N<sub>2</sub>로 쓰일 수 있는 명사는 대체로 [+유생, +인간, -상위]명사구이다.

(7) 他叫我給他介紹介紹那個話劇

그는 나에게 그 연극을 그한테 소개해주라고 했다.

(8) 體育老師叫我們進場

체육선생은 우리에게 입장하라고 했다.

(9) 媽媽叫我帶給她一塊蛋糕

엄마는 나에게 케익을 그녀에게 가져다주라고 했다.

(10) 父親叫女兒回到丈夫家裏

아버지는 딸에게 남편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18) 朱德熙(1984: 162)는 겸어식에 대하여 “어떤 방언에서 어떤 인칭대명사는 격의 변화가 있으며, 주어로 쓰일 경우의 형식이 있고, 빈어로 쓰일 경우의 형식이 따로 있다. 소위 말하는 겸어식에서 쓰이는 것은 賓格 형식이다. 이러한 사실은 N이 施事이더라도 N은 V1의 빈어로 볼 수 있을 뿐, V2의 주어로 볼 수는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11) 敵人叫男的站在一邊, 女的站在一邊.

적은 남자들에게 한 쪽에 서고 여자들에게 한 쪽에 서라고 했다.

(7~8)의 ‘介紹, 進은 자주동사이고, (9~11)의 ‘帶給 回到 站在는 자주 의미를 나타내는 술보구이다. (7~11)의 N<sub>2</sub>는 V/VC의 施事者이다. 왜냐하면 N<sub>2</sub>와 연계되는 동사나 술보구가 모두 자주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N<sub>2</sub>와 V/VC의 사이에는 施事者 관계가 구성된다. (7~11)의 N<sub>1</sub>은 ‘叫<sub>2</sub>’의 施事者이다. ‘叫<sub>2</sub>’는 ‘지시하다, ‘명령하다’의 의미가 있고 이런 행위를 N<sub>1</sub>이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叫<sub>2</sub>’구문은 ‘施事者+ 叫<sub>2</sub>+ 施事者+ 자주 의미의 술어성 어구’와 같은 의미구조가 형성된다.

(12) “謝謝曹丞相的箭。”接着就叫二十隻船駛回南岸

“曹 승상의 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20척의 배에 있는 군사들에게 배를 연안으로 몰고 돌아오라고 했다.

(13) 你叫食堂多做點飯

요리사에게 밥을 많이 하라고 하세요.

(12)의 ‘二十隻船’과 (13)의 ‘食堂’은 [-유생, +구체]명사구이며 각각 ‘叫<sub>2</sub>’구문의 N<sub>2</sub>로 쓰이고 있다. (12)의 자주동사 ‘駛가 나타내는 동작은 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있는 군사들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13)의 자주동사 ‘做의 동작도 식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IV.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의미적인 측면에서 현대중국어 ‘叫<sub>1</sub>’구문과 ‘叫<sub>2</sub>’구문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叫<sub>1</sub>’구문의 V/VC가 될 수 있는 술어성 어구는 비자주동사, 비자주 의미의 술보구(동결식, 동추식, 가능식), 비자주 의미의 형용사, 주술구 그리고 관용구이다. 자주동사는 V가 될 수 없다. ‘叫<sub>1</sub>’구문에서 N<sub>1</sub>은 V의 원인이 된다. N<sub>2</sub>는 V의 當事者이고, 이러한 當事者 성분으로 사용되는 어구는 [+유생, +인간, ±상위]명사구만 가능하다. 따라서 ‘叫<sub>1</sub>’구문은 “原因 + 叫<sub>1</sub> + 當事者 + 비자주 술어성 어구”와 같은 의미 구조가 형성된다.

‘叫<sub>2</sub>’구문의 V/VC가 될 수 있는 술어성 어구는 자주동사, 자주의미의 술보구(동결식, 동추식)와 자주의미의 형용사이며, 비자주동사, 비자주 의미의 술보구, 비자주 의미의 형용사는 V/VC가 될 수 없다. ‘叫<sub>2</sub>’구문에서 N<sub>1</sub>은 ‘叫<sub>2</sub>’의 施事者가 되며, 이러한 施事者 성분으로 사용되는 어구는 대체로 [+유생, +인간, +상위]명사구이다. N<sub>2</sub>는 V의 施事者이고, 이러한 施事者 성분으로 사용되는 어구는 [+유생, +인간, -상위]명사구만 가능하며, ‘叫<sub>2</sub>’구문은 “施事者 + 叫<sub>2</sub> + 施事者 + 자주 술어성 어구”와 같은 의미 구조가 형성된다.

#### < 參考文獻 >

- 馬慶株, <自主動詞和非自主動詞>,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 袁明軍, <非自主動詞的分類補議>, 《中國語文》, 1998年 第4期
- 袁毓林, 《現代漢語祈使句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93.
- 楊鳳清, <談談使動句>, 《西北師院學報》, 1982年 第1期
- 邢欣, <致使動詞的配價>, 《現代漢語配價語法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95.
- 王臨惠, <試論現代漢語的“致動動詞”>, 《語文研究》, 1991年 第4期.
- 鄧守信, <漢語使成式的語義>, 戴浩一, 薛鳳生 主編, 《功能主義與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4.
- 張靜, 《新編現代漢語》(上海教育出版社), 1980.

- 李臨定,《現代漢語句型》(商務印書館), 1986.
- 賈慶閣,〈兼語式研究述評〉,《語言文字學》, 1988年 第5期
- 孫德坤,〈“兼語式”研究述評〉,朱一之,王正剛 選編,《現代漢語語法研究的現狀和回顧》(語文出版社), 1987.
- 劉心用,〈使動句格位次序初探〉,《語言文字學》, 1985年 第12期
- 潭景春,〈使令動詞和使令句〉,《語法研究和探索》(語文出版社), 1995.
- 朱德熙,《語法講義》(商務印書館), 1984.
-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現代漢語虛詞例釋》(商務印書館), 1986.
- 吳競存·梁伯樞,《現代漢語句法結構與分析》(語文出版社), 1992.
- 史存直,〈論遞繫式和兼語式〉,《中國語文》, 1954年 3月號
- 馬真,《簡明實用漢語語法》(北京大學出版社), 1981.
- 劉月華,《實用現代漢語語法》(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83.
- 魯川,〈謂詞框架說略〉,《漢語學習》, 1992年 第4期
- 苗延昌,〈“使”자사동문의 의미론적 분석〉,《中語中文學》, 第21輯, 1997.

#### 〈中文提要〉

本文從語義上對‘叫<sub>1</sub>’字句(致使義)和‘叫<sub>2</sub>’字句(支使義)進行了分析. 本文提及的內容如下:

能充當‘叫<sub>1</sub>’字句的V/VC的詞語是非自主動詞 非自主義述補詞組(動結式, 動趨式, 可能式), 非自主義形容詞 非自主義主謂詞組和非自主義固定詞組. 在‘叫<sub>1</sub>’字句中, N<sub>1</sub>是V的原因, N<sub>2</sub>是V的當事者. 能充任當事者成分的詞語是[+有生, +屬人, ±上位]名詞或名詞詞組. 因而, ‘叫<sub>1</sub>’字句形成了‘原因+ 叫<sub>1</sub>+ 當事者+ 非自主義謂詞性詞語’這樣一個語義結構.

能充當‘叫<sub>2</sub>’字句的V/VC的詞語是自主動詞, 自主義述補詞組(動結式, 動趨式)和自主義形容詞. 在‘叫<sub>2</sub>’字句中, N<sub>1</sub>是‘叫<sub>2</sub>’的施事, 能作N<sub>1</sub>的詞語是[+有

生, + 屬人, + 上位]名詞或名詞詞組 N<sub>2</sub>是V的施事, 能作N<sub>2</sub>的詞語是[+ 有生, + 屬人, - 上位]名詞或名詞詞組 因而 ‘叫<sub>2</sub>’字句形成了‘施事+ 叫<sub>2</sub>+ 施事+ 自主義謂詞性詞語’這樣一個語義結構

주제어: ‘叫<sub>1</sub>’字句(致使義), ‘叫<sub>2</sub>’字句(支使義), 自主動詞 非自主動詞

K C I